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 이토가 카즈오 메 시지

와타나베, 아키오
金, 仙玉(翻訳)

(Citation)

제25회 장애아동교육연구협의회/고베대학부속특별지원학교

(Issue Date)

2021-11-20

(Resource Type)

conference object

(Version)

Accepted Manuscript

(URL)

<https://hdl.handle.net/20.500.14094/90008973>



제25회 장애아동교육연구협의회 / 고베대학부속특별지원학교
2021년 11월 20일(토) : 온라인강연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이토가 카즈오 메시지~

渡部 昭男

(와타나베 아키오)

고베대학원인간발달환경학연구과 명예객원교수 / 돗토리대학명예교수

아이치미츠오단기대학 현대유아교육학과 김선옥 (한국어번역)

강연 구성

- ▶ 제 I 부: 이토가 카즈오의 유년기~청년기
- ▶ @산인(요나고·돗토리·마츠에)의 추억
- ▶ 제 II 부: 복지의 사상
- ▶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 ▶ 인격발달 권리의 철처한 보장,
- ▶ 가로(가로축으로의) 발달~
- ▶ @1968『복지의 사상』NHK북
- ▶ 제 III 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 ▶ ~이토가의 메시지~
- ▶ @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

2014년 & 탄생 100년

- ▶ 2014년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1/20) 발효 (2/19)
- ▶ 특수교육 의무화 실시 35년 (1979)

시가현 오오미학원 68년 (1946)、돗토리 케이세이학원 63년 (쿠라요시 이전 1951)
발달보장 53년 (1961)、시가현 비와코 51년 (1963)

탄생 100년 : 다자이 오사무 (1909-1948) 「사양」 「인간 실격」
오카모토 타로 (1911-1996) 「태양의 탑」 「예술은 폭발이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1911-) 아사히 신문 「○살 나는 내 길을 걷는다」
도우이 요시오 (1912-1991) 「마을을 키우는 학력」
오다 사쿠노스케 (1913-1947) 「부부 단팔죽」
니이미 난키치 (1913-1948) 「여우 곤」
우에다 쇼지 (1913-2000) 사진가 「우에다조」
이토가 카즈오 (1914-1968)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토베안손 (1914-2001) 「무민」
미즈키 시게루 (1922-) 「게게게의 키타로」

유년기는 요나고 / 사춘기·청년기는 돗토리 이토가 성씨는 돗토리현에 많음 / 필명 「이나바 잇빠키」

·1914(T3).3.29 돗토리시 타치카와 탄생

*100년전 이토가가 유소년기를 보낸
대정시대 요나고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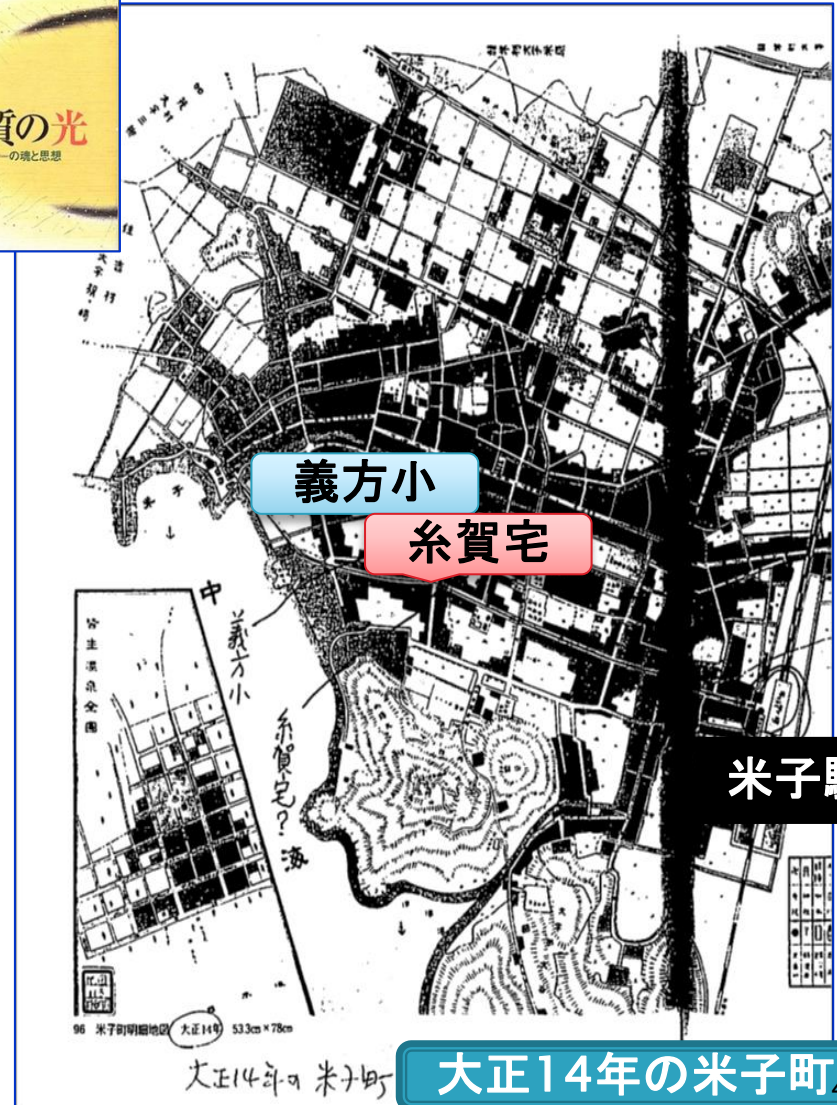
*바다 같은 호수 가까이 수봉대산

(다카야 키요시『이질의 빛』pp.9-10)
이 무렵 하쿠요 전철이 교외 법승사에서
요나고까지의 열차운행을 계획,건설.
1923년 4학년 9월 다시 돗토리시로
이사.

*일진심상초등학교

⇒현립 제2 중학교

⇒구 마쓰에 고등학교



「이나바의 흰토끼」신화와 전설 - 의료의 발상지 -

(사진촬영:와타나베 아키오)





일본의학의 발상지

な神社である。
 古事記に曰く淤岐ノ島に流された兎海之和邇を敷きて気多之前まで渡らむとせしが敷きを知りたる和邇により悉く衣服を剝がれ泣き悲しむ兎に八十神の命もちて海塩を浴みて風に当り伏せれば前にも増して痛みはげしく、ここに大穴牟遲神(大国主命)その兎に教へたまはく「今急ぐこの水門に往きて水もて汝が身を洗ひて、水門の蒲黄(カラスナ)を取りて敷き散らしその上に輾(ころも)てば汝が身、本の膚(かわ)の如必ず差えなむものぞ」と教へたまひさ。かれ教の如せしかば、その身もとの如くなりさ。……日本医療の発祥の地であり古来病氣傷痍に靈験あらたかな神様である。
 尚、大国主命と八上姫との縁を取りもたれた

이나바 잇빠키 : 모래언덕에서 펼쳐지는 푸른 바다와 하늘

(다카야 키요시『이질의 빛』p.162)
이토가는, 필명을「이나바 잇빠키」
로 작명할 정도로 태어난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그리고 자주
불렀던 노래도 산인지방의 민요
였다...



--- れむはたの波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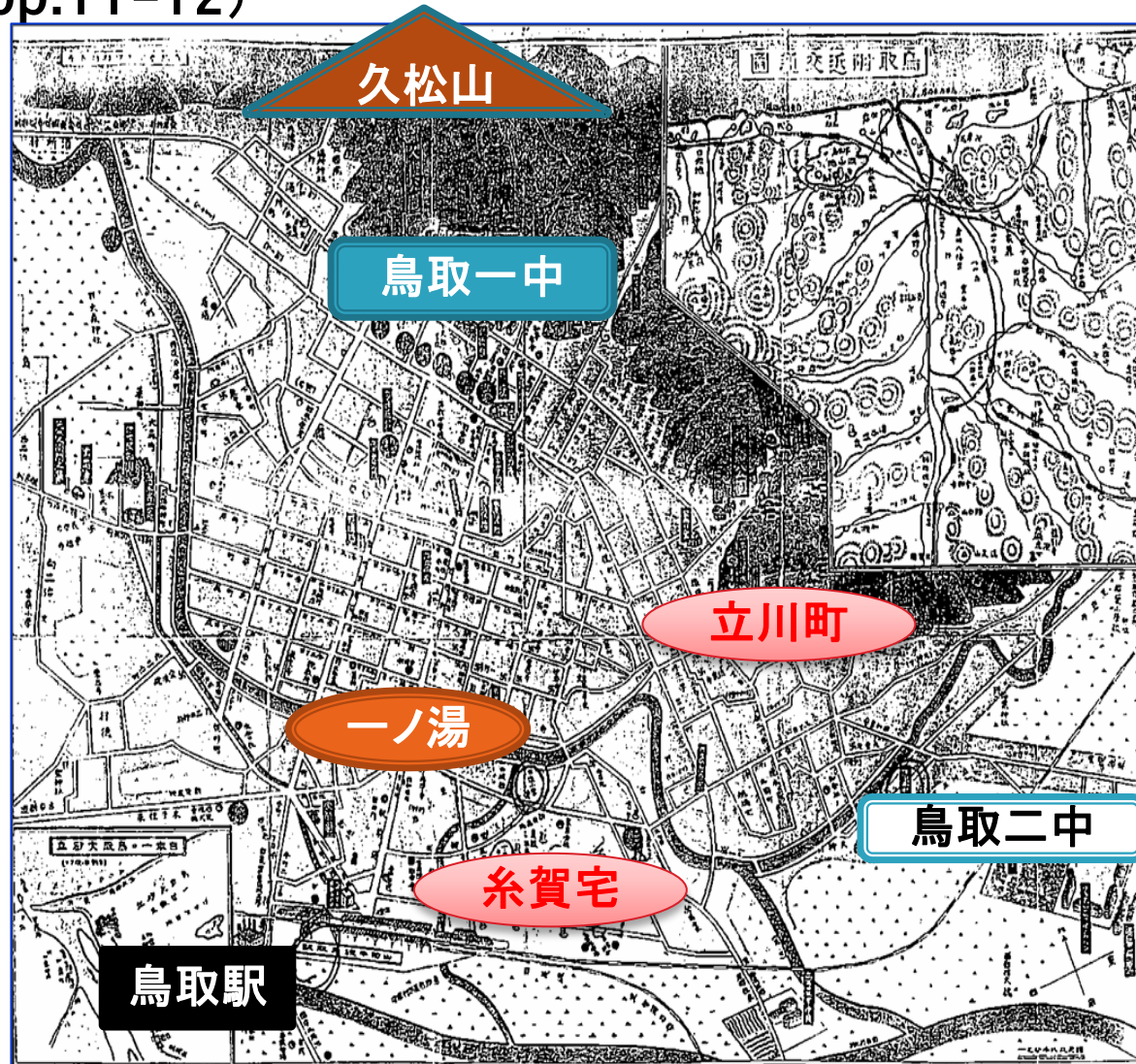
鳥取二中4期生卒業アルバムから

城の一中・自由(田舎)の二中:

*사춘기·청년시절을 보낸 전쟁전의 돗토리시
(다카야 키요시『이질의 빛』pp.11-12)
이토가는 자주「一ノ湯」에
놀러 갔고,나카시마와 함께
공부 했다.

· 1926년 4월 돗토리
현립 제2 중학교 진학

자유롭고 쾌활한 학풍으로
선생님과 제자가
협동하고 함께하는
이상과 패기가 있는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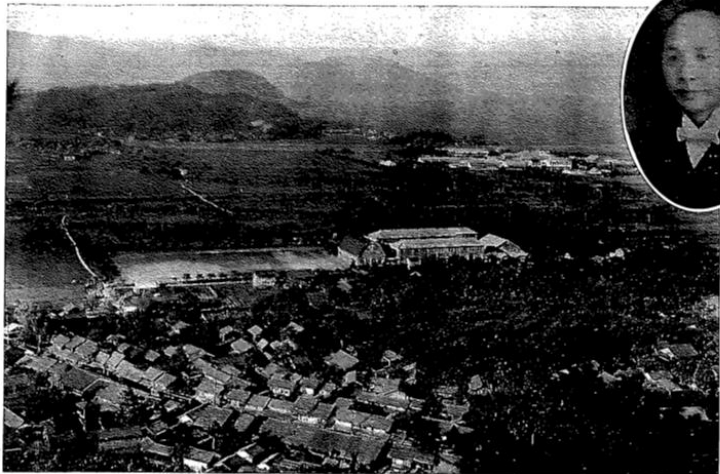


구 마츠에 고등학교 : (四進五修) 1930년 4월

(다카야『이질의 빛』p.21)

(...이 해, 4학년생 9명이 고등학교에 진학.) 마루야마는 형을 따라 에히메현 마츠야마 고등학교, 이토가는 의사가 되고자 돗토리현 마츠에 고등학교 이과 A반 (A반 영어전공, B반 독일어 전공)에 진학.

(3인 단짝 이토가 카즈오·나카시마 타츠이치로 : 이과 A반, 오구라 치카오 : 문과 B반) 졸업앨범 ↓ 진학자 9명 : 마루야마·이토가·나카시마



— 景 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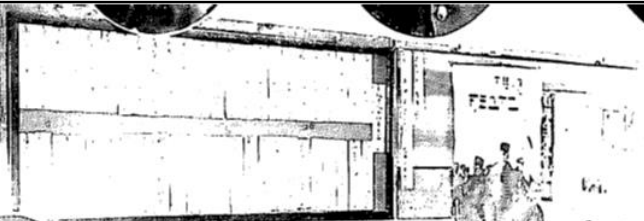
副校長 松田 茂



雄文 山岡



雄一 賀来



道正 内堀



郎一 津島中

휴학·세례·교회활동·문과로 전과

(다카야『이질의 빛』「신앙, 그리고 지망 변경」pp.30-34)

1930~31년(1~2학년):도중에 결핵으로 1년간 휴학

1932년(18세)9/18:일본기독교연맹 돗토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음.

*마츠에 키타호리교회 소속

1933년~「신앙록」수기5편,고교 YMCA 리더

1934년:교회발행 잡지『성북의 등』편집자,원고4편·편집후기

*인간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내가 할 일 ⇒ 문과로 전과

[돗토리교회HP 설문과 사진]돗토리교회는 1890(메이지23)년2월 독립(설립)한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돗토리현청 근처에 있음.* 현재는 전후 새로 설립된 건물로,이토가가 다녔던 당시의 것은 아니다.

마츠에키타호리교회↓(카와우치 키요미 칼럼『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2021) ↓돗토리교회(HP)



写真: 1980年頃の旧会堂(糸賀一雄が通った当時のたたずまいを残していた)



교토제국대학 문학부철학과: 1935년4월 입학

(다카야『이질의 빛』「만남」pp.34-42)

1934년 여름:일본기독교회 중국지방 하기 수련회

히로시마현 후시야마시~엔조사 총괄 코사코씨 집에서 숙박
(p.40)이토가는 마츠에 돌아온 후 곧 감사의 편지를 보냄/
후사도 답장을 보내고 가끔씩 편지를 주고 받다가 마침내
매일 편지를 주고 받았다.많을 때는...
신앙심이 깊고 현명하며,또한 열정가라고 생각했다.

(pp.44-45)

이토가와 후사는,1936년2월11일,
히로시마현 후시야마교회에서...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직후3월 마루야마가 산에서 조난으로 사망)

이토가 카즈오와 고향(돗토리·마츠에·산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①돗토리현2014:이토가 카즈오 미트 레벤 고향·돗토리에서의 최후 강연
(돗토리현립도서관/책자와 1968.2강연 육성녹음 대출가능)

②쿠니모토 신고2021:제5장 이토가 사상을「미트 레벤」를 통해 탐구
— 고향·돗토리에서의 발자취를 찾아서 —

③카와우치 키요코2021:칼럼1 이토가 카즈오의「영혼의 고향」마츠에

②③は『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삼학출판2021수록

이토가의 고향에 대한 생각 열정을 가진자가 역사를 만든다

돗토리현립도서관소장(글 사진은 도서관HP)
원 국가철도 총재 소고신지의 휘호

(다카야『이질의 빛』p.99소고와의 만남)

*이토가 기념회1989『추모집 이토가 카즈오』

(PDF 소고신지「서문」pp.1-3)

*이토가가(家) & 시가현의 보물이 왜 돗토리에
현립도서관개원1주년 기념「이토가 카즈오 공로전」2002

이토가家·오오미학원 기증

(와타나베 아키오2014「이토가 카즈오와 고향 돗토리」
『이토가 카즈오 탄생100년 기념 논문집』)

「(이토가가)돗토리를 고향으로 간절하게 원했던
그의 바람을 형태로 남을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는 것은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다.」이토가 부인 후사씨

いつか、彼に乞われて、「情熱をもった人間が歴史をつくる」と書いておくれたことがありま
す。歴史をつくるものは情熱と勇気だ、君はそう考えているんだらう。正しく君は勇気があり、情
熱があつて、個と全とを一体にし、融合することを心掛け、また実現している。それが君の最も秀
でたところである——こう僕は考え、願つて書きおくれたのであります。僕が彼について一番立派
だと感心するところは、彼が、彼の個人生活と彼の国家的理想というものを一体にしていること
であつたからです。

情熱をもちつた人間が歴史をつくる
系賀盟兄のこゝに

이토가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랑 서포터」운동

벤티지 제정 2009년 11/28 과 돗토리에서 운동 발신

장애가 있는 분을 지지하는 「마음」을 두 개의 하트로 겹쳐서 표현했습니다. 뒤의 하얀 하트는 장애가 있는 분을 지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시에

"supporter (서포터)"의 "S"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탕색인**

「주황색」은 돗토리현 출신으로 일본의 장애 복지에 크게 공헌한 이토가 카즈오가 남긴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의 「빛」과 「따뜻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대로」 사랑 서포터 운동이 사회에 널리 퍼져, 함께 사는 동행 사회의 실현을 바라는 기대도 담고 있습니다.

(돗토리현HP「장애복지과」사이트)

「あいサポーター」について

目的

誰もが、多様な障がいの特性、障がいのある方が困っていること、障がいのある方への必要な配慮などを理解して、障がいのある方に対してちょっとした手助けや配慮を実践することにより、障がいのある方が暮らしやすい地域社会（共生社会）を実現すること。



「あいサポーター」とは

多様な障がいの特性、障がいのある方が困っていること、障がいのある方への必要な配慮などを理解して、特別な技術を習得していなくても、日常生活において障がいのある方が困っているときに、ちょっとした手助けをする意欲があり、「あいサポートバッジ」を身につけている者。



「あいサポーター」になるためには

次のいずれかにより「あいサポートバッジ」及び「障がいの主な特性や必要な配慮の内容などをまとめたミニパンフレット」の交付を受ける。

- ① 各種講演会・イベント等に参加し、サポーターに関する説明等を受ける。
- ② 「あいサポートバッジ等交付申込書」を提出する。

「あいサポーター」の役割

- ① 多様な障がいの特性を理解し、障がいのある方にあたたかく接するとともに、障がいのある方が困っているときにはちょっとした手助けを行う。
- ② あいサポートバッジを日常的に装着して、障がいのある方が気軽に手助けを求められるようにするとともに、共生社会を実現することの大切さや「あいサポーター」の周知を行う。



君にも何か
2009年「障害者週間ポスター」
鳥取県知事賞

강연 구성

- ▶ 제 I 부: 이토가 카즈오의 유년기~청년기
- ▶ @산인(요나고·돗토리·마츠에)의 추억
- ▶ 제 II 부: 복지의 사상
- ▶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 ▶ 인격발달 권리의 철저한 보장,
- ▶ 가로(가로축으로의) 발달~
- ▶ @1968『복지의 사상』NHK북
- ▶ 제 III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 ▶ ~이토가의 메시지~
- ▶ @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

제2키누가사 심상초등학교 대용교원

(다카야 『이질의 빛』 「초등학교의 교원은 최상위 교육자」 pp.61-63)

1938년 : 4학년 여자반 대용교원시절 이케다 타로 & 기무라 모리모토와의 만남 (pp. 75-78)

- 우선 인간은 착함·아름다움·현명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여 노력 하는 존재임 = 向上愛 (향상애) = 인간성 향상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에로스)
- 그러나, 인간은 절대적 존재이기도 하다. 향상적이라는 차원에서는 미완성이라도,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는 타인과 바꿀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인정하는 존재이다 = 絶対愛 (절대애) = 현실에서 절대적으로 승인하고 긍정하는 것 (아가페)

1939년 : dotsori 제40연대에서 병으로 소집해제, 기무라 모리모토의 소개로 시가현으로

교토&시가 시대의 약력

1938년(24세) 졸업 / 제2키누가사 심상초등학교 대용교원

*이케다 타로·기무라 모리모토와의 만남

1939년(25세) 돗토리 제40연대 / 병으로 소집해제

*거의 전원 전사

1940년(26세) 시가현 사회교육주사보

1941년 지사 관방 비서 과장 / 콘도 조타로 지사에게 사사

*학생의용군 운동 참가 / 소고 신지의 신뢰를 얻음

1942년 三津浜학원에 이케야마 타로 추천

1943년 石山학원에 타무라 이찌지 추천

1945년 종전 / 경제부 식료과장

1946년 기무라 모리모토 타계 / 결핵 재발 @ 真野浜에서 요양
오오미학원설립취지서 / 11月 오오미학원창설

질병요양과 오오미학원 창설

- ▶ 종전 전후 담당했던 시가현 경제 통제 과장, 식량과장으로서의 「힘들었던 공무원」생활에서 벗어나, 결핵요양을 위해 비와코 호반의 마노에서 휴양 중이던 1946년 7월, 이토가는 고민에 빠졌다.
- ▶ ……쉬고 있던 어느 날, 나는 반야심경에 빠졌다. 식량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 생활에 깊은 고민과 의문에 빠졌다. 나는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싶어졌다. 마노에 온 후 나는 아내와 의논하여 교토대학 의학부에 재입학 해서 의사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고등학교 때 이과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33살이니까 ……
- ▶ (이토가카즈오 1965『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이토가카즈오 저작집 I』1982수록, pp.13-172)p.17)

이때 이케다 타로와 타무라 이찌지가 찾아와 「정신 박약아와 전쟁고아의 시설 오오미학원 설립」을 이토가에게 제안

- ▶ ……내가 이 사업에 뛰어들다면 그것은 평생의 문제이어야 한다. 그리고 평생 고민해야 하는 **열정**의 문제여야 한다. **열정**은 수용해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더 나가 조국 재건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하는 **이 사업에 대한 신념이 문제이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p.16)
- ▶ ……따라서 나는 일생일대의 전환기를 맞이해야만 한다. **병을 계기로 나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조금씩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냉철한 비판 정신을 가지고, 더욱 **타오르는 열정에**, 몸을 바치려한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기를 생각하고 있다**.(p.16)

- ▶ ……과장일지도 모르지만, 꼭 초대 크리스트교인이 박해 속에서 결연하게 신앙을 표명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것처럼, 나는 마음속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리스트교에 대한 신앙을 느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 크리스트교, 나는 나 나름대로 부활하려 하고 있다. 나는 믿음을 갖고 그 후에 사랑의 사업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추진시키는 것은, 나의 몸 안에 솟아나는 열정이다. 게다가 이 열정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

(p.19)

복지의 사상

이토가카즈오 1968『복지의 사상』일본방송출판협회

① [pp.9-16] 시작하며

p.9 나 자신은 그 속에서 애태우며 고민해,
그리고 작지만 진전을 위해 싸워 왔다고.

구체적인 사회복지 문제는 오오미학원이라는 역사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었다.



p.10 **인간의 새로운 가치관 창조를 목표로 하는 역사적인
투쟁**의 일환 . . . 우리 자신의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혁 . . .

복지의 사상

②[pp.17-53] 1. 정신 박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37 **사회의 내면적인 변화이며, 진보이며, 오히려**
교육적 혁명이라고 해도 좋다..

52 **한 구석 (켄)을 진지하게 비추는...그 실천이**
깊은 세계를 통해, 역사를 만드는 삶이 되어간다.

③[pp.55-80] 2. 사회복지의 기본

64 **이 들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존재이며,**
생명의 존엄과 자기실현을 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인간으로서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랑으로 공감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사회의 상식이
되도록 행하는 것이 「복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복지의 사상

④[pp.81-101] 3. 권리사상 형성

⑤[pp.103-128] 4.장애인의 삶의 보람

107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가는 만인 공통인 발달 과정을 밟는다.

116-117 산송장...이라고 생각했다.그러나,그렇지 않았다.

⑥[pp.129-150] 5. 정신박약자 시설에서의 「요육」에 대해서

133-137 1946년~병원→1948년 목조2층건축→1953년

「술잎반」훈련과 보호 집단

144-145 영구불치 환자→요육, 즉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비와코 학원)

148 시설에서는, 특히 **집단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인격 발달을 추구한다.**

그 실천에 관한 기록이야말로 보물...동시에 **직원의 끊임없는 인격형성...**

복지의 사상

⑧[pp.167-188] 7. 발달보장이라는 생각

172 중증장애아동 ... 모든이들의 발달보장의 사상과 기반, 방법 탄생

175 「인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이 아이」라고 하는 살아 있는 생명, **개성 있는 이 아이**... (와타나베: 이 아이·들을·세상의 빛으로)

176 보호라고 하는 명목으로 길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 리하빌리테이션 → 하빌리테이션(인간으로써 형성)

177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개성적인 자기실현... 자기실현이야말로

창조이며, 생산이다...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인격발달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

... 빈곤하고 좁은 인격이 아니라, 풍부하고 따뜻한 인간으로 키우고 싶다. 세 살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라도 그 세 살이라는 발달단계 **안에는 무한하고 풍부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체제, 기술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을 위한 실천이야말로 모든 교육의 공통 문제...

복지의 사상

⑨[pp.189-244] 8. 지역복지에서

232 **지역의 구체적인 니즈**를 전문적인 관점에서 흥미하고 조사하고, 소셜액션(사회적활동)...으로써, 사회까지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메김한다...

232 복지의 사상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32 사회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맞서야 한다.

244 **주민의 니즈를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리하여 모든 주민이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가로축으로의 발달」등 이토가카즈오의 사상과 실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①垂髪あかり2020:〈가로축으로의 발달〉이란 (일본표준 리플렛23)

②蜂谷俊隆2021:第2章 이토가카즈오의 생애와 사상

③垂髪あかり2021:第3章 -증증심신장애인(아)「자기 이해」의 길

④門前斐紀2021:第4章 -기무라 모리모토「형성(性)」과 이토가 카즈오「생산(性)」

⑤遠藤六朗2021:第8章 -이토가 카즈오「생명사상」을 출발점으로

⑥中野リン2021:第13章 이토가 카즈오과 마사·C·누스밤의 가능성 어프로치

②~⑥『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삼학 출판2021수록

강연 구성

- ▶ 제 I 부: 이토가 카즈오의 유년기~청년기
- ▶ @산인(요나고·돗토리·마츠에)의 추억
- ▶ 제 II 부: 복지의 사상
- ▶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 ▶ 인격발달 권리의 철처한 보장,
- ▶ 가로(가로축으로의) 발달~
- ▶ @1968『복지의 사상』NHK북
- ▶ 제 III 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 ▶ ~이토가의 메시지~
- ▶ @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

문명과 사회의 발전 **바톤을 받아 다음 세대에 건네다**

- ▶ **단계 1** : 단계 1 : 근세까지의 육아(교육 복지를 포함)는 **촌락 공동체에서 공동적으로 운영되어 왔지만**, 사회 전체의 풍부함과 과학 기술 수준의 발전 정도에 따라, 장애아동 양육은 한계가 있었다.
- ▶ **단계 2** : 근현대화 과정에 있어서 **촌락 공동체 붕괴와 함께 공동 육아 기능도 약체화되어 간다. 한편 국가적인 학교교육이 제도화되지만 장애아는 대상 외로 가정에 방치된다.** 이에 구원의 손을 내민 것이 사회(사회복지) 사업·아동보호(아동복지) 사업이었다.
- ▶ **단계 3** : 전후,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교육적 기능, 치료적 기능을 겸비한 요육이 개발되었다.**
- ▶ 이러한 선구적인 운영의 축적으로 **중도의 장애아동에게도 발달 및 교육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로 증명되어, 전원 취학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성은 특정 복지시설, 병원과 학교에서 제공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에서 떨어진 '특수' '분리' 방식에 머물렀다.**
- ▶ ↓ 이토가 카즈오의 사상과 실천
- ▶ **단계 4** : 20세기 말~21세기 사회 전체의 풍부함과 과학 기술 수준의 발전으로, **특정 기관 내에 한정되지 않는 형태의 전문성 제공, 즉 병원·시설·학교를 오픈화하여 재택이용을 포함한 지역 의료, 지역 복지, 지역 교육 등이 가능해졌다.** 노멀라이제이션, 인클루전의 이념 확산으로 **함께 지역에서 자라서 배우고, 일, 생활을 지향하게 되었다.** 붕괴된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가 모두가 존중받고 공생하는 **지역사회로서 새롭게 창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국 헌법: 그 능력에 맞게 (26조)

· 宮澤俊義 미야자와 도시요시 1955『일본국 헌법 코멘타르 편』일본평론신사 pp.267-268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능력(학력·건강 등)에 따라 차별받은 것은 당연하다…

· 이토가 자신도, 「문제아」 「영원한 유아」 「낙오자」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 「특별한 보호의 환경을 사회가 마련하여 / 거의 인지능력이 없는 그들이 안심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외에는 / 해결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토가 카즈오 저작집 I 1982 p.400)

사상마동 : NHK스페셜 라스트 메시지 제6집2007

· 이토가는 처음부터「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인격발달 권리의 철저한 보장」「가로 (가로축으로의) 발달」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

· 사상마동 양명학의 생각NHK라스트 메시지2007
행동이나 실천을 통해 지식과 정신을 수양하는 것



⇒ **자신과의 싸움 자기성찰을 통해 능력관을 전환**

· 1960-61년: 유럽 순방, 1961년: 오오미학원 연보에 「발달보장」제기, 1963년: 비와코학원 창설,

1965년: 일차원의 아이들, 1967-68년: 새벽이 오기 전의 아이들·1968년: 9/17시가현 아동복지시설 등
신임직원연수회「시설에서의 인간관계」

『이토가 카즈오—사랑과 공감 교육—(개정판)』(나카가와 서점2009)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란 말을 남기고 쓰러진 후
다음날 타계

~이토가 카즈오의 메시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강의용 메모『이토가 카즈오 최후의 강의』pp.72-76

강연 목차: 시설에서의 인간관계

76 1. 수용시설의 시대적 특징

75 2. 요육에서의 인간관계

(1) 요육에 대해서

74 (2) 인간관계에 대해서

① 일반적으로

i) 본래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다

ii)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이 되어간다

iii) 애정이 길러짐, 교육애(教育愛)로의 발전

· 교육의 근원에 있는 것 / · 무재칠시

iv) 이 아이들을 세상의 빛으로

· 「을」와 「에게」의 차이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38-39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 간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로서의 사람입니다. **개체의 사람이**
사람으로서 태어나 그리고 인간이 되어간다.

영문번역(나카노 린·네기시 하나코2018: Education with Love and
Empathy: The Last Lecture of Kazuo Itoga)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81010166.pdf>

49 **···my view is that we are “born as persons
and become human”** [hito to umarete ningen
to naru]. What I mean is that **we are born as
individuals and eventually become human
beings.**

41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그것은 본래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50 However to say that we are born as persons and become human means that **we are born possessing a social existence but we have to tackle the problem of this social existence. This is the role of education.**

41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간다. 한자로 인간이란 사람과 사람의 사이(관계) 을 의미한다.

... 단순한 개체가 아니다. 자주 우리들은 인간 인간 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야말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50 We are born as persons and become human. The word “human being” is written with the Chinese characters meaning “between people.” It does not refer to one person alone. It refers to having a social existence. **Human relationships form the basis of our humanity which means that relationships are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So having a social existence attests that we are becoming human beings. To live means that we live as social beings.**

공감의 세계

41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이 되어 간다는 것은 사회적 존재임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2 **그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 (관계) 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세계를 의미한다. 에고이즘, 자신만 존재하면 나만 괜찮으면 좋다는 생각이 아니다.**

50 **It goes without saying that relationships between persons brings us to the world of empathy.** In this world there is no room for the egoism of the self, or the thinking that it is fine as long as I alone exist.

공감의 세계

45...중증 심신장애, 정신박약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세계를,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감의 세계라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을 알아야 합니다.**

50...we are basically the same as those people with mental retardation or with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I am interested to know more about the world of empathy that emerges from the fact that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share the same origins. We can see these shared origins when considering human growth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 Rationally as well we can see that shared origins form the basis of the world of empathy.**

사랑을 키우다

45 다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교육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인간적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승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50 Growth of Love

The ability to truly empathize requires time. It takes years for human affection based on interaction with others to rise to the level of educational love. **Although it may take many years, human love gradually emerges. And eventually real love in our hearts – for humanity and for ourselves – develops.**

46...나는 지금 합당하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합당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이 진심으로 움직이기까지 몇 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길, 목표가 분명하니까,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키워 가고 싶습니다.**

51 I have been talking about the nurturance of love and rising to the level of educational love. Let me talk about rationality now. With or without rationality, true love develops in our hearts. It may take many years. **Because the road and target are clear, and because it may take many years, we truly want to grow love in our hearts without any rush or hurry.**

46 사랑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니까 자란다. 사랑은 어디서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달라붙는 것도 아니다.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애증 속에서 애정이 먼저 자라야 합니다.

51 Love is something that grows. It grows because it originally occurs within us. Lov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purchased with money. Love is not something that sticks to you without your knowledge. However, for true love to grow, feelings of love that exist in the complex feelings of “love and hate” must grow first.

최신간「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

와타나베·쿠리모토·우나이 편저/삼학 출판2021

특설사이트『이토가 카즈오 연구의 신전개』에서 확인 가능

<https://sites.google.com/view/itogakenkyubook/home>

Information/Guidance코너에 관련 정보 제공

*「이토가 카즈오의 최후의 강의」=현재4개 국어로 번역

○중국어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81009516.pdf>

○한국어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81009517.pdf>

○영어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81010166.pdf>

○불어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81012935.pdf>

영어논고 <http://www.lib.kobe-u.ac.jp/repository/90003267.pdf>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 온라인 강연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츠타 교장선생님, 고베대학 부속 특수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